

# 선인들에게 참공부의 길을 묻다

글 정진라 현암사 편집부



우리 사회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치유될 것 같지 않은 공부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 일 년에도 몇 차례 교육 정책이 바뀌고, 무수한 방법론이 쏟아지지만 그만큼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부모, 이 사회 모두가 오히려 상처투성이가 되는 듯하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고, 경제력이 학력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서점에 가보면 교육법, 공부법에 관한 책들이 넘친다. 청소년의 미래를 걱정하는 책들, 미래를 설계하는 책들,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비법을 담은 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잘 읽히지 않던 동서양의 고전이 논술 광풍 덕분에 산뜻한 외장을 하고 아이들을 유혹한다. 무수한 필독서는 내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입시를 잘 치룰 수 있을까,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를 가르친다. 이러한 담론들이 무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도나도 그 길을 좇지만,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진정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인지. 저자의 바람처럼 '정녕 공부가 전쟁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윤택해지고, 투명해지고, 삶이 충만해지는 그런 세계'를 꿈꾸어 볼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는 우리의 지성사에서, 특히 공부론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해 왔다. 기형적인 교육열로 들뜬 사회에, 뭔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그 과정에서 선인들의 공부에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많은 편견과 오해를 받으며 무용한 철학으로 치부되어 가는 조선 유학자의 공부에서 오늘날 교육에 실마리를 발견한다. 유학은 생경한 개념어들

로 인해 어지간한 학식 가지고는 접근조차 어려운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유효한 삶의 철학이 담겨 있다.

필자 역시 처음 원고를 받았을 때 전체를 읽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성리학으로 불리는 유학은 너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 학문으로만 보였다. 하지만 찬찬히 따라 읽다 보니 선인들의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선인들이 공부의 문제를 철저하게 파고들면서 평생을 두고 고민한 것은, 공부라는 것이 곧 삶의 문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공부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데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나아가고 물러남의 문제', '무수한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지키면서 내 꿈을 이루고, 타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궁구한 것. 그것이 바로 공부였다.

오늘날 공부의 문제는, 공부가 삶으로부터 유리되었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왜 공부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물을 겨를도 없이, 맹목적으로 남이 가는 길을 좇아가고 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왜 공부하는가를 물으며,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한다. 그러한 질문 속에서 공부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자 한다.

저자는 우리 교육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꾸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 토양에서 자라난 다양한 공부 속에서 현재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참 공부를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공부에 대한,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선생님의 연구가 우리 사회가 공부를 통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